

전 남

연간 185억 수익사업 장기 독점·수익계약 특혜시비 논란

여수 청소 대행업체 도마위에

시, 오늘 시민공청회 열고 개선 모색

30여 년 장기독점과 수익계약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여수지역 청소대행 업무가 수술대에 오른다.

여수시는 “13일 오후 3시 여수 지방해양환경청 회의실에서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여수지역 청소 대행업무 개선 시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장기독점과 특혜시비 등 많은 논란을 야기 시켜왔던 여수지역 청소대행 업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자리로, 김철문 지방공기업 평가원 연구원과 이원준 전남대 환경시스템학과 교수, 전창근 여수시의원, 청소대행업체 변호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여수지역 청소대행업체는 4개 업체로, 옛 여수권을 맡고 있는 여수 보건공사는 28년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옛 여천시의 일반 주택지를 맡고 있는 여천 보건공사도 26년째 영업 중이다. 또 옛 여천군지역의 청소대행업을 하는 그린여천환경도 15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옛 여천시의 산단주택단지과 재래시장, 부영아

파트 등을 맡고 있는 진남위생공사 역시 14년째 지속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유틸리티 등 모든 예산을 여수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과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남도로부터 각각 장기 수익계약에 따른 개선 권고 및 감사지적을 받았다.

또 전창근 의원 등 시의회에서도 특혜시비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용역을 의뢰, 청소대행업 평가원 연구원과 이원준 전남대 환경시스템학과 교수, 전창근 여수시의원, 청소대행업체 변호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시가 올해 지급할 청소대행업무 사업비는 총185억 원이다. 여수시는 최근 몇 년간 청소대행업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바 있으나 번번이 대행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 답변 때 “청소업체

문제의 심각성을 이번에서야 알게 됐다”며 “박람회 폐막 이후 개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충석 현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폐지를 주장했던 시 도시공사에 청소대행 업무를 이관할 것으로 알려져 도시공사의 향후 존재 여부가 불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여수지역 중소기업 40개업체 참가 300여명 채용 취업박람회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13일 여수 학동 흥국체육관에서 ‘2012 일자리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자원산업(주), 알메탈(주) 등 지역 중소기업 40개 업체가 현장에서 신규인력 300여 명을 직·간접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구직자를 면접하는 ‘직접 채용관’과 이력서 접수에 대행해 주는 ‘간접 채용관’, 취업 준비 요령을 소개하는 ‘취업 상담관’, 이력서 작성과 면접 요령 등을 소개하는

‘취업 컨설팅관’ 등을 운영한다. 특히 여수공단 취업 컨설팅관에서는 GS칼텍스 등 대기업 11개사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기업별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준비 요령 등을 소개한다.

같은날 디오션 호텔에서는 여수상회의와 전남도 고용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취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잡스쿨(Job-School)’을 운영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왼쪽에서 2번째)이 지난 11일 강진군 벼 백수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백수피해 들녘 찾은 이상길 농림부 차관

“피해 너무 크다...정부 차원 지원 검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약속도

강진군이 제15호 태풍 블라벤의 영향으로 벼 백수(白穗=벼 이삭마름)를 피해로 크게 입어 정부에 피해보상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이 지난 11일 강진군을 방문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현재 강진군내 3400ha에서 백수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700ha는 바닷바람에 의한 조풍(潮風) 피해로 수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0억원의 농가손실이 예상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농가들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함은 물론 조사료 경영체 등과 합의를 통해 백수피해 벼에 대한 조사료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상길 제1차관은 박근혜 부총리로 부터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날 벼 백수 피해를 크게 입은 신전면 벌정리 대밭·약천 들녘을 살펴보았다.

강진원 군수는 ▲백수피해농가 재

난 지원지수 향상 ▲농작물 재해보험 상향(현행 50→60%) ▲고사벼 제거 인력 및 장비대 지원 ▲조풍피해 작목 대파대 지원 현실화 ▲농가별 피해를 아닌 필지별 피해율에 따른 보상 ▲특별재난지구 선정지역 사유시설 차별화 지원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차관은 “중앙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2012. 9. 22(토) 오후3시,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광주MBC | 주 관 | 문커뮤니케이션 | 제 작 | 이나이스엔터테인먼트
|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 문 의 | 220-0541 · 1600-4534
| 티켓가격 | VIP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기공체조로 체질 개선

강진군 인양면 수문마을 주민들이 지난 11일 ‘한방 사상체질 교실’에서 기공체조를 익히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상체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활 방법을 찾음으로써 지역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흥군 제공)

곶태풍 피해 인삼농가 울고싶어라

6년근 혈값 수매라니...

인삼 태우며 강력 항의

태풍 ‘블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인삼 농가 인삼공사의 혈값수매로 또 한번 피해를 보고 있다.

전남 인삼연합회 소속 농민 100여명은 지난 11일 나주시 동강면 한국인삼공사 수매장 앞에서 인삼을 태우며 인삼공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인삼공사가 태풍피해를 빌미로 6년근 인삼을 혈값으로 매입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인삼농가들은 “인삼공사가 1등급 6년근 인삼을 태풍으로 머릿부분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3등급이나 등외급으로 매입하고 있다”며 “인삼이 썩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1등급 인삼의 경우 kg당 약 9만 원 선에서 수매가 이뤄지는데, 인삼공사가 태풍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3

등급인 4만4000원이나 등외급인 2만 원 선에서 수매하고 있어 손해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삼농가들은 인삼의 흠집이 머릿부분에 집중돼 통상 흉상으로 가공할 경우 성분 등 품질에 이상이 없는데도 인삼공사 측이 이를 악용해 혈값으로 인삼을 사들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한국인삼공사 측 관계자는 “태풍피해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품질 검사 기준에 맞춰 등급관정을 해 수매하고 있다”며 “인삼에 흠집이 날 경우 흉상으로 가공하더라도 성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 인삼연합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인삼농가 피해는 451곳 605ha에 달해 피해액만 14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국립나주박물관 사업비 전액 예산 반영해달라”

나주시의회, 정부·국회 등에 건의문 발송

나주시의회(의장 김종운)는 나주시 반남면에 건립중인 국립 나주박물관이 예정대로 내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최근 정부 및 국회, 정당 등에 보냈다.

12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400억원중 올해 사업비로 216억 원을 예산을 책정해야 함에도 108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 중앙박물관은 사업비 전액이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 반영은 물론 9월 국회 예산안 심의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10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나주박물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박물관이 없는 전남지역 주민들

의 염원을 담아 지난 2007년 1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2010년 12월 착공해 201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립 나주 박물관은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일대 부지 9만㎡에 지상 1층·지하 2층 규모로 전시실과 문화재를 보존할 수장고, 야외 전시장, 강당, 역사문화의 체험장 등을 갖추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